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형성

The Emergence of Christian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신기영

- I. 세계의 종교민족주의
 - 1. 종교민족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 국가중심적 모델의 비판을 중심으로
 - 2. 식민하 종교 민족주의의 형성조건
 - II.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
 - 1.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
 - 2.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형성 조건들
 - III.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새로운 연구 방향
- 참고문헌

Abstract

Christian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is an unique case in the emergence among the conventional religious nationalisms observed throughout the world. The uniqueness is reflected in the following question: How was Christianity newly introduced to Korea deeply involved in nation-buildi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For uncovering the myth, a comparative analysis on several cases of religious nationalisms was conducted, from which deriving three conditions of the emergence, such as identification between religion and the nation, relative autonomy of religion, and organizational vacuum in nation-building. Applying these conditions to the Korean case, importance of the political position of Christianity was found. First, intimat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Western nations enabled Christianity to keep the relative autonomy from the colonial state, and it also facilitated a strong identification of the nation facing the cultural vacuum with Christianity. Second, a distant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Japan became an important background for Christianity to be accepted as a new institutional arena for nation-building suffering from the organizational vacuum. Due to the uniquenes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hristian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it was suggested a new model including the colonial policy and the power balance between the missionary and the Korean in the Christian organization.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종교민족주의의 전형과 그 형성과정과는 다른 한 독특한 경우이다. 그 독특성은 “어떻게 한국 땅에 전래된 지 얼마 안된 기독교가 일제하 민족형성에 깊히 참여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에서 나타난다. 이를 위해, 먼저 식민하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종교 민족주의의 경우들을 비교분석하여, 세 가지 형성조건들을 도출했다. 즉 종교와 민족의 동일시, 종교의 상대적 자율성, 민족형성에서의 조직적 공백 등이다. 이것을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에 적용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가졌던 독특한 정치적 위치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기독교와 서구 열강과의 친밀한 정치적 관계는 일본 식민정부로부터 기독교가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 받게 하였고, 문화적 공백을 겪고 있던 한국 민족이 기독교와 문화적 동일시를 갖게 했다. 둘째, 기독교와 일본과의 소원한 정치적 관계는 조직적 공백을 겪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에 기독교가 새로운 제도적 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독특함 때문에,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식민정책과 기독교 조직내 외국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상대적 지도력 등의 변화를 고려한 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I 세계의 종교민족주의¹⁾

전세계를 통해 일어났던 민족 형성 운동들에 관한 연구는²⁾ 종교가 민족

1) 종교민족주의란 종교와 민족주의 간의 연계를 통해 민족형성과정에 깊히 참여하게 된 종교가 낳은 그 자체의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이 개념 정의는 한 종교가 형성시킨 민족주의를 사회전체가 발전시킨 민족주의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2) 민족형성(Nation-Building)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그 과정에 공헌하는 다양한 행위자(actor)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단위로, 밴더스(Bendix, 1964)와 포지(Poggi, 1978) 등은 개개인의 시민들과 결사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큰 단위로, 앤더슨(Anderson, 1983), 배디와 버바움(Badie, Birbaum, 1983)과 토마스(Thomas, 1985) 등은 문화와 종교제도를, 그리

형성의 한 주된 추진세력을 밝히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퓨리탄혁명(Walzer, 1965), 영국에서 일어났던 천년왕국주의 혁명(Burridge, 1985),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Thomas, 1989),³⁾ 현대 근본주의 이슬람혁명(Lincoln, 1985), 그리고 남미에서 발달된 해방신학(Guiterrez, 1973)과 한국의 민중신학(서남동, 1986) 등은 이를 증거하는 몇 가지 예들이다.

특히 식민국가의 민족형성에서 종교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공산정권 하에서 민족주의적 정교회(Orthodox Church)가 구 소련연방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폴란드에서도 Solidarity운동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Pospislove-sky, 1984).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식민전의 천년왕국주의가 식민후에 신성한 민족주의로 발전했다(Lewy, 1974).

아시아 지역을 보면, 영국 식민 하에서 버마의 민족운동은 불교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화란식민하의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람교가 민족운동의 주축이 되었다(von der Mehden, 1963). 중국이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열강들의 반식민지가 되면서 유교는 외국인 배척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Chan, 1981), 구 대만인 포모사에서 도교 수도자들이 비록 작은 빈도였지만 반일제 민족운동을 일으켰다(Takekoshi, 1907). 스페인 식민하의 필리핀에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사제주의(Anti-Clericism)가 그 식민열강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의 한 종교적 표현으로 형성되었고(von der Mehden, 1963), 일제하 한국에서도 3.1 독립운동이 천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세력들에

고 국가중심적 학자들인 힌츠(Hintze, 1968), 크라스너(Krasner, 1976)와 틸리(Tilly, 1975) 등은 국가(state)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과 좀 성격을 달리하는 신막스주의학자들, 폴란츠(Poulantzas, 1969), 블락(Block, 1981) 등은 민족 형성에서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 현대 미국에서 민족정체성 형성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종종 사회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공산주의, Watergate사건, 여성해방운동 등이 일으킨 도덕적 위기에 대항했던 기독교인들의 운동(Liebman and Wuthnow, 1983), 낙태 반대운동에서 종교인들의 공헌(McCarthy, 1987), 그리고 60년대 시민권 운동에서 흑인교회들의 참여(Morris, 1981) 등이 그 예들이다.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Oh, 1974).

위에서 살펴본 예들은, 민족형성에서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어지며, 특별히 식민상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 종교민족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 국가 중심적 모델의 비판을 중심으로

민족형성에서 종교의 역할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거의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런 사회학적 전통은 마스주의자와 다윈주의자의 초기 경제모델에서부터 최근의 국가 중심적 모델(state-centered model)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가 중심적 모델은 깊은 통찰력을 주지만, 민족형성의 문화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게 한다. 국가 중심적 모델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autonomy)과 자원 역량(resource capacity)을 강조하며 국가를 사회의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본다(Evans, Ruschemeyer and Skocpol, 1985). 따라서, 국가는 민족형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행위자들, 즉 도시(Tilly, 1975; Poggi, 1978), 경제적 집단들(Krasner, 1976), 또는 교회(Hintze, 1968) 등을 넘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⁴⁾

이런 국가 중심적 견해는 국가 외의 기관들에 의한 민족형성에서의 역할을 국가로 환원시키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 이런 환원적 경향은 특별히 종교를 포함한 민족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면, 프라이델(Fridell, 1973)의 20세기 초 신도종교와 일본정치의 역사적 연구는 민족형성에서 신도의 역할을 너무 축소화시키고, 신도를 단순히 시민들에게 민족적 충성을 불러넣는 국가의 한 도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터너(B.

4) 이런 현대 국가의 개념화는 다른 사회적 제도들에 대한 국가의 공격적인 통합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들(Ramirez and Weiss, 1979), 복지체계(Hage and Hanneman, 1980; Deviney, 1983), 그리고 학교들(Ramirez and Boli, 1987).

Turner, 1987)의 호주 사회의 민족형성 연구에서도, 종교가 민족의 도덕적 기반의 발전에 한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면서 이런 종교의 공헌은 국가의 후원없이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 연구는 편협된 선가정(presupposition)으로 인해, 종교자체가 가진 독립된 영향력을 애초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논의는 식민상황하의 민족형성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식민하에서 국가는 종종 사회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고, 민족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가정되어진다. 따라서 다른 기관들의 참여는 단지 식민국가의 꼭두각시로 묘사된다. 이런 환원주의적 경향은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중심적 학자들은 종교를 민족형성에서 식민행정의 적법성을 증강시키는 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식민하 인도에서 무슬람교와 힌두교에 대한 연구(F. Robinson, 1974), 그리고 식민하 한국에서 천도교, 불교, 기독교에 대한 연구들(W. Kang, 1974; 1987) 등은 그런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는 예들이다.

2 식민하 종교민족주의의 형성조건

앞의 예들은, 식민국가가 민족형성에 비록 큰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역할은 역시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종교가 식민상황에서 민족형성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관련 문헌은 두 가지 일반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첫째는 식민화된 제3세계 국가의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간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며, 두번째 대답은 종교와 식민국가 간의 관계 성격에서 나온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종교와 민족간의 관계에서 유출되는 상호 동일시의 조건, 그리고 종교와 식민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종교의 상대적 자율성, 조직적인 공백 등이다.

1) 민족형성의 조직적 공백에서 종교가 유일한 합법적인 제도적 장이 되어야 한다.

식민정부가 새로운 지역에 세워지면서, 정부는 우선 정치적으로 활동력 있는 조직들을 모두 비정치화(depolicitization) 시키는 경향이 있다(Laitin, 1985). 이는 기존의 정치조직의 영향력을 그 사회에서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식민정부에 대항해서 민족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화된 집단이 절대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비정치화 과정에서도 종교 조직들은, 만약 식민정부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근간을 둔 종교정책을 펴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생존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식민 사회가 전형적으로 겪는 조직적 공백(organizational vacuum)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는 그 사회의 민족형성에 유일하게 생존하는 제도적 장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식민하 민족형성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이는 대부분의 제도적 장들이 민족주의적인 종교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 소련연방 식민하의 폴란드와 구소련에서, 정교회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조직이었다. 식민 버마에서의 불교, 식민 인도네시아에서의 무슬람교, 식민 필리핀에서의 로마 카톨릭교도 역시 식민기간 동안 식민정부로부터 인정된 유일한 자율적인 대중조직이었다. 이런 종교집단들은 식민 상황이 가져온 민족형성의 조직적 공백 가운데, 이 민족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되었던 것이다.

2) 종교가 식민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교의 상대적 자율성 문제는 식민상황을 초월해 민족형성에서 종교의 역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 왔다(Fullbrook, 1983; Wuthnow, 1985; Miller, 1993). 그 중심된 논의는 종교의 역할 정도가 그 국가의 종교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국가가 종교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국가의 통제력이 증대되는 식민상황에서 종교의 상대적 자율성은 더 중요한 점

이 된다. Mol(1985)에 따르면, 근원적으로 종교의 자율성은 종교와 국가 간의 분리라는 헌법적 원리에 달려있다. 위의 예들이 보여 주듯이 종교가 민족형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식민정부는 이런 헌법적 원리를 갖고 있었다. 구 소련연방에 의해 통치되었던 폴란드와 유럽 열강들, 미국에 의해 식민화되었던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에서의 식민정부는 이런 원리를 도입했었다. 따라서 이런 헌법적 보호 아래서, 종교는 어느 정도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었고, 종교적인 목적 뿐 아니라 민족적인 목적까지도 조심스럽게 유지할 수 있었다.

3) 종교가 그 민족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민족이라 함은 공통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제3세계에서의 종교와 문화, 또는 종교와 민족 간의 밀접한 관계는, 종교가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과 쉽게 동일시 할 수 있게 해준다. 제3세계 종교전문가들⁵⁾은 성스러운 것(the sacred)과 세속적인 것(the secular) 간의 뿔 수 없는 연계를 제3세계 종교의 한 독특한 점으로 밝히고 있다. 식민화된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람교도가 됨은 곧 그 민족의식에 공헌한다는 의미가 있고, 식민화된 버마에서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은 곧 버마인으로서는 간주되지 않는 것 등은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 간에 불가분리의 문화적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제3세계 민족주의의 근원과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민족과 종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Anderson, 1983).

종교와 그 민족 공동체와의 동일시는 종교가 내지인과 식민세력간의 구분의 표로 사용되면서 더 강화된다(von der Mehden, 1963). 종교는 종종 지배자로부터 피지배자를 분리하는 한 방법을 제공하는 문화적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를 후원하는 것은 식민세력에 대한 혐오의 한 표현이었고, 식민화된 버마에서 민족주의자들은 그들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식민국가인 영국의 추종자들로 생각했었다. 이와같이,

5) von der Mehden, 1963; Smith, 1971; Jules-Rosette, 1985.

한 개인의 종교는 민족공동체와의 동일시를 표하는 것이고, 한 종교의 후원
은 식민통치에 대한 한 개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이 민족에게 문화적, 정치적 상징의 역할을 한 종교들은 모두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토착화된 것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교, 버마에
서의 불교,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로마 카톨릭교 등 민족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종교들은 그 나라에서 오랜 세월을 통해 뿌리를 내린 종교들이다.
이런 토착적 성격은 한 종교가 그 민족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게 한다.

위의 간략한 경험적 관찰을 통해, 제3세계 지역, 특히 식민정치하에서 종
교가 민족주의에 연계되어 공헌하게 되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세 가지 점에
서 도출하였다. 우선 종교가 그 민족과 강한 동일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동일시는 제3세계의 종교의 독특한 특징, 즉 모든
사회영역에 종교의 편만한 영향과 자기민족을 식민세력으로부터 구분시키
는 문화적 상징 등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리고 이 과정이 토
착화된 종교에 의해 비교적 쉽게 이뤄짐을 보았다. 둘째로, 종교는 식민국
가의 헌법적 원칙과 그에 따른 종교정책에 따라 다른 어느 사회조직들보다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대적 자율
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는, 식민상황하에서 흔히 있는 민족형성에서의 조
직적 공백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적 장이 되어 민족형성 과정에 깊
히 참여하게 된다.

II.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

세계 곳곳의 종교민족주의에 관한 비교 분석에서 도출된 세 가지 주된
조건들을 기초로, 일제하에서 한국 기독교가 민족형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
연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의 역사적 고찰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
하게나마 일제하 한국 기독교가 과연 민족주의와 밀접히 연계되었었는지를,
제3자적 입장에 있었지만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외국 선교사들과 일본

정부의 평가에서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한다. 그 연계가 사실이라면, 일제하에서 어떻게 미토착화된 한국 기독교가 민족형성 과정에 연계되어 공헌하게 되었는지 위의 조건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려고 한다.

1.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

미국북장로교의 한 주한 선교사는 1895년도 선교보고서에서 한국 기독교의 한 독특한 성격으로 그 애국애족의 정신을 지적했다.

대나무 끝에서 조그마한 한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이 깃발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서 휘날리는 것이었다. 주일이면 국기를 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 띄운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아무 지시도 없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실천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의 성격을 표명하고 그들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민경배, 1988: p. 216).

이 증언은, 한국 땅에 기독교가 심겨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민족주의와 깊히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

또 하나의 증거는 전혀 다른 쪽에서 찾을 수 있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권을 장악했던 일본의 주한 공사관 기록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배를 추진해 오던 일본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 위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⁶⁾

일본의 압박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는 와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 보호 밑에 크게 세력을 양성하며 장차 십자군병을 일으켜 일본의 세력을 한국에서 축출하자. ...⁷⁾

6) 이런 일본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W. Kang, 1974; Palmer, 1974; 노치준, 1987).

7) 원출처는 일본공사관기록(1905) 중에 “야소교회 입회 의 건”이다. - 서광일(1986), p. 7.

한국 기독교 초기에 주한 선교사와 주한 일본공사관의 기록은 일찍부터 기독교는 민족주의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이제 이 연계가 과연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다.

2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형성조건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1885년부터였다. 당시 한국에 있던 종교들, 불교와 유교 등의 전래 역사에 비한다면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서구 종교였던 것이다. 한일합방시를 기준한다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30년도 채 안된 형편이었다.

그러면 주로 토착화된 종교들이 보였던 민족주의와의 연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새로운 종교가 일제하 민족형성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나?

1) 조직적 공백

합방 전에는,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민족주의를 주도하던 세 집단들이 있었다. 첫째는, 구한말 정권을 지배하던 유교집단이고, 둘째는 개화파 지식인들, 마지막으로 천도교(동학)집단이었다(Kim, 1981).

먼저, 구한말 정부를 지배하고 있던 보수적인 유교집단은 쇄국적인 노선에서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들의 민족주의적 정책은 프랑스 함대 침몰과 관련된 병인양요(1866), 서만호 사건 이후 미국과의 충돌을 일으킨 신미양요(1871) 등을 낳았으며, 대원군이 그 집단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유학자들의 공동체는 서양 학문을 악한 것으로 저주했으며, 정부의 반외세 입장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또한, 유교 공동체는 1895년, 1905년, 그리고 1907년의 의병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었다⁸⁾.

8) 이이화(1990)에 따르면, 1895년에 유교 집단들은 민비 시해사건과 일본의 무리한 정치, 문화개혁을 반대해서 일본과 대항하는 군사활동을 전개했고, 1905년에는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유학자의 지도력과 더불어 농민들이 동원되었다. 1907년에는 그 해 해산되었던 대한

다른 하나의 민족주의적 집단은 한국 서구화가 민족부강과 독립의 길임을 주장했던 개화파 지식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1884년에 갑신정변과 1894년의 갑오경장들의 개혁을 시도했었다. 이 집단의 특징은, 그들은 사회 지배계층 출신이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의 보수집권파에 의해 소외되었던 집단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들은 대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빌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합방 전에 한국의 민족주의를 주도했던 집단은 천도교⁹⁾라 불리던 한국의 민속 종교집단이었다(Oh, 1974). 천도교는 반봉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을 띤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이 집단이 일으킨 대표적인 민족 운동은 구한말 정부에 대항한 1894년의 동학혁명이다.¹⁰⁾

그러나 한일합방(1910)은 이들 집단들에게 전혀 다른 정치적 상황을 가져다 주었다. 먼저, 합방 직전에 일본군이 벌인 “남한대토벌작전”은 군사적인 민족운동을 주로 했던 천도교집단의 활동을 쇠퇴시켰다. 그리고 합방 이후 친일세력의 정계 등단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구정치 지배집단은 자연히 도되었다. 신민회를 뿌리뽑기 위해 조작된 “105인 사건”(1910~1912)은 위의 정치집단을 비롯해, 다른 모든 민족주의적 정치집단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곧 대부분의 이런 집단들은 그들의 활동무대를 만주나 미국으로 옮기게 되어, 한반도 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다. 개화파 지식인 집단은 합방 후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그들의 정치개혁을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자주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에 의해 식민화되고, 반일적 정서가 고조되면서 이 집단은 그 민족적 입지를 잃게 되었다.

식민정부가 정치적인 집단들에 대해 압제적인 정책을 폈던 반면, 제도 종교집단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덜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국 정부군인들의 의병 가담으로 대규모의 반일항쟁이 있었다.

9) 원래는 동학이라 했는데, 1905년에 천도교로 변명되었다. 여기서는 천도교라 일컬을 것이다.

10) 동학혁명은 중국의 Boxer 항쟁과 더불어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선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운동이다(Chan, 1981).

이는 19세기 후반에 메이지 정부가 채택했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들이 당시 일본식민국가들에서도 적용되었고(Murakami, 1980),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W. Kang, 1987). 그 식민정부는 종교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 도구로 생각했기에, 오히려 국가의 행정수행을 돕도록 종교계에 요청하였다(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1911).

따라서, 식민화된 한국에서 조직적 활동들이 정부차원에서 허용된 것은 바로 종교집단들에 한했다. 특별히 이런 정부적 호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3대 종교인 불교, 유교, 기독교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각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사정은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불교는 지난 500여 년의 조선시대 동안 박해를 당했던 종교였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조선의 압정은 합방과 더불어 끝나게 되었고, 식민정부는 “불교옹호회” 조직 등의 정부적 노력을 통해 한국 불교의 보호를 꾀하였다. 이에 앞장 세워진 이들은 정부관료들과 이완용같은 친일인사들이었다. 결정적으로, 사찰령(1911)과 그의 관련법규(1916)는 한국 불교의 행정을 정부통제 하에 통합시키게 했다(W. Kang, 1974). 친일세력의 개입과 종교 행정의 간섭은 불교가 더 이상 식민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였다. 불교의 결여된 자율성은 3.1독립선언에 불교지도자들의 참여 등의 불교 신도 개인적 민족운동 참여에 그쳤고, 민족형성에 불교집단이 제도적 차원에서 부진했던 것의 한 배경이 된다.

한국의 유교 공동체는 초기부터 일본 식민정부의 수혜 집단이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선한 시민의 본을 보인 9,811명의 유학도와 3,209명의 효자들과 유도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일본 황제의 선물을 하사했다(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1911). 1911년, 정부는 한국 유교의 자존심이었던 성균관을 대신할 새로운 유교기관인 경학원을 세웠다. 고급 유교기관이었던 향교도 정부의 유교 보호정책 하에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이 기관의 운영은 자연히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받게 되었다. 유교 공동체가 식민정부에 그 조직적, 재정적 의존도를 높히면서, 민족주의적 목적을 위한

조직자원의 자율적 사용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말았다. 이런 과정 가운데, 유교 공동체가 가진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는 그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 신뢰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방이 가져온 정치적 대변화는 구한말에 있었던 민족주의적 집단들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의 주 종교집단이던 천도교, 불교, 그리고 유교는 더 이상 민족형성에 그들의 조직적, 문화적 자원을 동원할 자율성을 갖지 못했다. 정치적 집단이든 종교적 집단이든, 식민정부의 통제로부터 살아남아 민족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조직화된 집단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식민화된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었던 조직적 공백 상황을 낳았던 것이다(Kim, 1981).

2) 식민국가로부터의 기독교의 상대적 자율성

이런 조직적 공백 상태에서도 기독교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신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에 부딪치는 1930년 후반기까지, 기독교는 불교와 유교가 받았던 식민정부의 간섭에 비해 적은 통제를 받았다(W. Kang, 1974). 이런 정부의 차별적 종교정책은 미북장로교 제6회 외국선교회의 연회의 기록에서 사실로 입증된다. “일본 정부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관용적이지만, 특히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다. …”(1905: 238).

그 근본 이유는 기독교의 외교적 위치 때문이었다. 기독교는 당시 국제 질서에 정치적·군사적 열강국가 출신의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국 선교가 이루어졌고, 시행되었다. 을사보호조약과 더불어 1906년에 통감부가 세워지면서, 모든 외국 공사관들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선교사 집단은 식민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통로가 되었다(이만열, 1982). 아시아 신생제국으로서 일본의 성공은 서구 열강국들과의 외교적 관계에 달려있었으므로(강동진, 1984), 그 정부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선교사들의 지배적 운영을 간섭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따라서 제도 교회, 출판업체, 기독교 사회단체들(예: YMCA¹¹⁾)의 운영은 어

는 정도 그 공동체 자체의 통제하에 남게 되었다.

이런 기독교의 상대적 자율성은 기독교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민족형성에 필요한 조직적인 자원들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했으며, 비록 미토착화된 새로운 종교였지만, 일제 시대에 민족주의적 동원을 위한 제도적 장이 되도록 해 주었다(송건호, 1980).

3) 기독교와 민족 간의 동일시

민족주의의 조직적 공백, 기독교의 상대적 자율성과 더불어 기독교가 가졌던 강한 동일시는 기독교가 민족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 동일시는 두 요인들에 의해 일어났고 더 강화되었다. 첫째, 당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공백상태(cultural vacuum), 둘째 기독교와 식민정부의 분리된 관계(separation of Christianity from colonial power)이다.

먼저, 문화적 공백에 대해서 보면, 500여 년의 조선 시대 동안 형성된 유교와 한국 민족과의 문화적 동일시가 1895년의 중일전쟁 이후 무너져 한국 사회는 심각한 문화적 공백을 갖게 되었다(T. Kang, 1974).¹²⁾ 더우기 일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기 문화 우월의 정치 공세는 지금까지 문화에 대해 자랑스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런 문화적 공백을 더

11) 한국 YMCA는 통감부시대와 초기 총독부시대에 정부로부터 매년 후원금을 받았다(이만열, 1982; W. Kang, 1987). 그러나 그 기간은 초기 일제 시대에 국한되어 있고, 일제 시대 내내 보여진 YMCA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그 정부 후원이 YMCA의 상대적 자율성을 마비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전택부, 1978).

12) 조선 사회에서 유교의 문화적 인기는 주변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던 중국의 정치적 위치에 기인했던 것 같다. 이것은 “한국 지배 종교의 변천사가 중국의 것에 시대 대칭적인가”라는 역사적 논의를 불러 일으킨다. 통일 신라와 고구려에서의 융성했던 불교는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당, 송, 그리고 원나라에서의 불교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조선의 송유억불책은 그와 대칭되는 명과 청에서의 유교의 지배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은 한국 종교사를 국제 정치적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구한말에 한국 사회가 유교적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로 향하는 과정에 이런 국제 정치적 영향이 있었음을 가정한다.

크게 느끼게 했다(Kim, 1981). 이 문화적 공백감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구분할 수 있는 더 나은 문화를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서구 문화의 산물들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서구에서 전래된 기독교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더 우월한 서구 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¹³⁾ 기독교를 숭배하는 서구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종교의 영향력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조선 시대 동안에 유교적 가치로 굳어진 문화적 틀에 기초되어 있다. 즉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박영신, 1989). 이런 문화적 틀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종교와 민족 간의 불가분리적 이해를 갖게 했고, 우월한 문화가 부강한 나라의 건설을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이만열, 1986; Wells, 1990). 이런 점에서 일본에 의해 망국의 위기에 놓인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는 한 희망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¹⁴⁾

둘째, 기독교는 식민세력인 일본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현대 세계의 식민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대개 제국 열강국가들의 종교로서 식민지역에 전래되었던 종교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서구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갖지 않은 일본에 의해 식민화되었다(민경배, 1987). 더욱 중요하게는, 기독교는 식민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나라들 출신의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독교는 식민국가의 정치적 침략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기독교의 일본과의 무관함과 정세변화에 따른 반외세주의에서 반일본주의로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변화는 기독교가 한국 민족과

13) 이렇게 기독교가 우월한 문화로서 인식된 경우는 식민화된 아프리카에서도 보여진다. 란테나리(Lantermar, 1985)에 따르면, 아프리카인의 민족운동에서 회복주의자들(irredentist)의 운동과 그 반대의 통합주의자들(integrative)의 운동 모두가 기독교의 성경을 각각의 민족 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전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혁명적인 활동을 해석했고, 후자는 신약 성경의 주제인 구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운동을 전개했다.

14)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중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첸(Chan, 1981)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반외세주의의 근원이었던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계속 갖고 있었다.

동일시적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III.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새로운 연구 방향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형성은 세계 곳곳에 있었던 종교 민족주의의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조건들을 적용함으로 더 잘 이해되어졌다. 그러나 각 조건이 한국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만이 가진 그 독특한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졌던 정치적 위치(political position)이다. 이 성격은 기독교가 갖고 있던 미토착적 성격을 넘어 작용함으로 한국 기독교로 하여금 민족형성 과정에 크게 공헌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먼저, 선교사들을 통한 기독교와 서구 열강국가와의 정치적 관계이다. 이 정치적 관계는 주한 선교사들과 본국 선교본부 간의 서신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그들의 정치적 입장, 특별히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유발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했다(조영렬, 1990). 그러나, 총독부가 기독교를 이러한 정치적 관계에서 이해하고, 대기독교 정책을 펴고 있었기에, 다른 종교집단과 달리 기독교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총독부의 민족주의 단체들에 대한 초기 압제와 불교, 유교 등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으로 초래된 한국 민족주의의 조직적 공백 중에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조직화된 집단으로 남겨지게 되어, 민족형성 과정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기독교의 서구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는 성숙통합의 가치를 지닌 한국 민족에게 기독교의 우월성으로 해석하게 되어, 기존의 지배 종교들을 넘어 이 새로운 서구 종교에 기대를 거는 역사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종교와 민족의 통합원리는 심각한 문화적 공백기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민족형성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일본과 가졌던 정치적 관계이다. 식민세력과의 철

저히 분리된 정치적 관계는 한국 민족과의 동일시 관계를 갖게 하는데 고무적인 배경이 되었다.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일본의 비기독교적인 성격과 더불어 기독교가 식민기간에 가졌던 식민정부와의 정치적 거리가 기독교를 한국 민족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장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기독교의 정치적 위치에서 고려된 세 가지 측면들에서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식민정부의 정책이다. 한국 기독교의 자율성이 식민정부의 정책에 연관되어 있음으로 그 정책 변화야말로 식민기간 중에 기독교 민족주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일반적인 정치적 동향이며, 미시적으로는 기독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변수의 수용은 국가 중심적 모델의 결정론적 오류를 극복하고, 종교와 국가정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 기독교 조직내에서 선교사들의 영향력이다. 본국 정부와 선교 본부들의 주한 선교사들의 관리는 초기 기독교가 발전시킨 민족주의에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조직은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선교사 지배적 조직에서 한국인들의 지도력 증대는 기독교 민족주의의 성향에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이 기독교 민족주의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독교가 위치한 외부 정치적 환경과 기독교 내부조직의 권력관계를 포함한 이 새로운 모델을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동진, 「일제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4).
- 김형석, “한국 기독교와 3.1운동”,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이만열 편(보성, 1986), pp. 335~382.
- 노치준, “1907년 개신교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국 기독교사연구」 15/16:(1987), pp. 4~18.
-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 「한국 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박영신,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기독교”, 「한국 교회와 사회」 이원규 편(나단, 1989), pp. 294~308.
- 서광일, “한말 기독교인들의 반식민운동”, 「한국 기독교사연구」 10, (1986), pp. 6~17.
- 서남동, 「민중신학의 연구」(한길사, 1986).
- 송건호, “한국교회와 한국민족”, 「기독교 사상」 266:(1980), pp. 75~88.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81).
- , “개신교의 전래와 일제하 교회와 국가”,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국가권력과 기독교」(민중사, 1982), pp. 135~190.
- , “한말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보성, 1986), pp. 11~74.
- 이이화, 「한국 근현대사 사전」(가람기획, 1990).
-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정음사, 1978).
- 조영렬, “재한선교사와 한국독립운동”, 「한국기독교사연구」 29:(1990), pp. 4~12.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London: Verso, 1983).
- Badie, Bertrand and Pierre Birbaum, *The Sociology of the State*, Trans. by A. Goldhamme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Bendix, Reinhard,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NY: John Wiley, 1964).

- Block, Fred, "The Fiscal Crisis of the Capitalist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7:(1981), pp. 1~27.
- Burridge, K, "Millennialisms and the Recreation of History", in *Religion, Rebellion and Revolution*, ed. by B. Lincoln(Hampshire: Macmillan Press), pp. 219~235.
- Chan, F. Gilbert, *Nationalism in East Asia*(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81).
-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Fridell, Wilbur M., *Japanese Shrine Mergers, 1906~1912*(Tokyo: Kawata Press, 1973).
- Fulbrook, Mary, *Piety and Politics: Religion and the Rise of Absolutism in England, Wurtemberg, and Prussia*(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Government - General of Korea, *Annual Report of Reform and Progress in Korea*(1910~1911).
- Gutie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Trans. by Sister Caridad Inda and John Eagleson, Maryknoll(N.Y.: Orbis Books, 1973).
- Hage, J. and R. Hanneman, "The Growth of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France, Germany, and Italy: A Comparison of three paradigms" in *Comparative Social Research*, ed. by Richard F. Tomasson. Greenwich(CT: JAI Press, 1980), pp. 45~70 .
- Hintze, Otto, "Th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State and Society: A Reader in Comparative Political Sociology*, ed. by Reinhard Bendix(Boston: Little, Brown, 1968), pp. 154~169.
- Jules-Rosette, Bennetta, "The Sacred and Third World Societies", in *The Sacred in a Secular Age: Toward Revision in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ed. by Phillip E. Hammond(Berkeley: University of

- California Press, 1985), pp. 215~233.
- Kang, Thomas Hosuck,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Confucian Personality under Japanese Rule", in *Korea's Repsonse to Japa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ed. by C. I. Eugene Kim and D. E. Motimore(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4), pp. 293~315.
- Kang, Wi Jo, "Religion and Politics Under Japanese Rule", in *Korea's Response to Japa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ed. by C. I. Eugene Kim and D. E. Mortimore(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4), pp. 103~122,.
- , *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the Japanese Rule*, Lewiston(NY: E. Mellen Press, 1987)..
- Kim, Han-Kyo, "Korean Nationalism" in *Nationalism in East Asia*, ed. by F. G. Chan(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81), pp. 135~162.
- Krasner, S.,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1976), pp. 317~347.
- Laitin, David D., "Hegemony and Religious Conflict: British Imperial Control and Political Cleavages in Yorubaland",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ed. by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5~316.
- Lanternari, Vittorio, "Revolution and/or Integration in African Socio-Religious Movements" in *Religion, Rebellion, and Revolution*, ed. by Bruce Lincoln(Hampshire: Macmillan Press, 1985), pp. 129~156
- Lewy, Guenter, *Religion and Revolution*(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Liebman, Robert C. and R. Wuthnow, *The New Christian Rights. Hawthorne*(N.Y.: Aldine Publishing Co., 1983).
- Lincoln, Bruce, *Religion, Rebellion, and Revolution*(Hampshire: Macmillan Press, 1985).

- McCarthy, John D., "Pro-Life and Pro-Choice Mobilization: Infrastructure Deficits and New Technologies", in *Social Movement in an Organizational Society*, ed. by Mayer N. Zald and John D. McCarthy(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87), pp. 49~66.
- Mol, Hans, "New Perspectives from Cross-Cultural Studies" in *The Sacred in A Secular Age: Toward Revision in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ed. by Phillip E. Hammo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90~103.
- Morris, Aldon, "Black Southern Student Sit-In Movement: An Analysis of Internal 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1981), pp. 744~767.
- Murakami, Shigeyoshi, *Japanese Religion in the Modern century*(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0).
- Oh, John Kie-Chiang, "Chundokyo and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s Response to Japa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ed. by C. I. Eugene Kim and D. E. Mortimore(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4), pp. 123~138.
- Palmer, Spencer J., "Korean Christians and the Shinto Shrine Issue", in *Korea's Response To Japa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ed. by C. I. Eugene Kim and D. E. Mortimore(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4), pp. 139~161.
- Poggi, Gianfranc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Pospelovsky, D., "Some Remarks on the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and Religious Revival",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11(1984), pp. 71~85.
- Poulantzas, Nicos,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58(1969), pp. 67~78.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A,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1905).

Ramirez, Francisco O. and John Boli, "On the Union of States and Schools" in *Institutional Structure: Constituting State, Society, and the Individual*, ed. by George M. Thomas, J. Meyer, F. O. Ramirez, and J. Boli(Newbury Park: Sage, 1987), pp. 173~197.

Robinson, Francis, *Separationism Among Indian Muslim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Smith, Donald E., *Religion, Politics, and Social Change in the Third World*(NY: Free Press, 1971).

Takekoshi, Yosaburo, *Japanese Rule in Formosa*(London: Aberdeen University Press, 1907).

Tilly, Charles,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h.1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Thomas, M. George, *Revivalism and Cultural Chang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Turner, Bryan S., "Religion, State and Civil Society: Nation-Building in Australia", in *Church-State Relations: Tensions and Transitions*, ed. by Thomas Robbins and Roland Robertson(New Jersey: Transaction, 1987), pp. 233~252.

von der Mehden, Fred R.,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3).

Walzer, Michael, *The Revolution of the Saints*(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Wells, Kenneth M., *New God, New Nation*(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Wuthnow, Robert, "State Structures and Ideological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6)(1985), pp. 799~821.



■ 신기영 ■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성균관대에서 사회학과 전공,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현 학교법인의 복음학원 사무국장, '도서출판 동학' 대표, 저서 「본향을 소망하신 나 그네」,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 1885~1945」(출간 예정) 등이 있음.